

책임 있는 연구수행(RCR)을 위한 연구자의 역할

이 인 재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 센터장

도덕이 인간 삶의 경쟁력임을 믿는 사람



- ❖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 ❖ 서울교육대학교 교무처장 및 총장직무대리 역임
- ❖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고려대학교 IRB, 육아정책연구소 IRB 위원
- ❖ 교육부 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 센터장
- ❖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 ❖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사무총장
- ❖ 교육부 제4기 연구윤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 한국윤리교육학회 부회장
- ❖ A Founding Member of the Asia and Pacific Rim Integrity(APRI Network)

주요내용

1. 생각해 보기
2. 연구활동의 스펙트럼과 연구윤리의 쟁점
3.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4. 연구수행 단계별 연구자의 책임
 - 1) 기획단계
 - 2) 데이터수집 및 분석
 - 3) 출판단계
5. 부실학술활동 예방
6. 결론: 바람직한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자의 책임



나에게 연구윤리란?

이다.

왜냐
하면

때문이다.

생각해 보기(1)

국내 대학 병원의 정형외과 교수들이 연구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환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논문을 작성해 국제학술지에 냈다가 7편의 논문이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으로 무더기로 철회되는데 이어 5편이 최근 추가로 철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임상실험에 사용된 환자 데이터는 반드시 환자 동의를 받게 돼 있지만 논문 조작은 아니지만 12편에 이르는 논문이 기본적인 연구 윤리를 위반한채 투고됐다는 점에서 소속 기관의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교수들이 소속된 대학에서는 취재가 이뤄질 때까지 연구자들이 환자 동의 없이 자신들의 논문을 위해 데이터를 가져다 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과 해당 대학측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모습이다.

하다드 교수는 "의학 연구는 이론과 데이터, 증거 위에 만들어 지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연구의 진실성"이라며 "데이터 조작은 우리들은 물론, 환자들에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다드 교수는 "연구팀들로부터 납득할만 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소속 연구자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져야할 기관들조차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생각해 보기 (2)

중학생이 SCI 논문 공동저자... 알고보니 교수 지인 딸

한국계 미국인 교수, 논문에 고교생 아들도 함께 공동저자로
정부출연 연구소 25곳의 논문 중 100여편이 미성년자가 저자 출처: Chosun.com, 2020. 1. 8)

SCI 등재 학술지에 이름 올린 중학생·고등학생



※교신저자는 학술지 편집자 또는 다른 연구자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저자로, 책임저자 또는
프로젝트 책임자 역할을 한다

정부 출연연구소 지원으로 5년 전 국제 저명 학
술지에 실린 공학 분야 논문에 서울의 한 중학생
이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7일 확인됐
다.

이 논문의 교신 저자(논문 저술 과정을 총괄하는
저자)인 미국 대학 A교수는 "지인의 딸"이라고 연
구소에 해명했지만, 중학생 공동 저자의 구체적
인 역할을 밝히지 않았다. A교수는 한국계 미국
인으로 문제가 된 논문에는 고등학생인 자신의
아들도 공동 저자로 돼 있다.

입시 비리 의혹으로 이어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와 마찬가지로, 교
수가 본인 자녀나 지인의 자녀 등에게 저자 지위

를 선물해주는 '선물 저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연구비를 댄 정부 출연 연구소들은 이
런 사실을 알고도 저자 자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소 25곳에서 수행한 연구 논문의 미성
년 저자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런 사례를 포함해 미성년자가 공동 저자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 100여 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연
구 윤리 위반 여부와 대학 입시 악용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생각해 보기 (3)

“99\$(11만원 정도) 내면 영어 학술지 논문이 게재된다. 가짜 학술지 유혹에 빠진 교수들” -중앙 Sunday, 2018. 9. 8. <https://news.joins.com/article/22952877>

Predatory Journals



What Are Predatory Journals And Why Should We Worry?



[스코퍼스 논문 수 대비 부실학술지 게재비중 : 논문 수 상위 20개국 중]

국가	전체시기(1996~2018)			최근 5년(2014~2018)		
	전체논문수 (건)	부실학술지 논문수(건)	부실 학술지 게재비중(%)	전체논문수 (건)	부실 학술지 논문수(건)	부실학술지 게재비중(%)
인도	165만 6234	11만 4603	6.92	74만 1652	6만 7487	9.1
한국	109만 8566	4만 1615	3.79	41만 1505	3만 29	7.3
중국	575만 7041	17만 6046	3.06	253만 8981	11만 8329	4.66
러시아	106만 356	18만 183	3.79	38만 2672	1만 5472	4.04
이탈리아	172만 8352	3만 1504	1.82	56만 7573	2만 2284	3.93
스페인	137만 351	2만 397	1.49	46만 1831	1만 4700	3.18
미국	1201만 2158	10만 2875	0.86	334만 148	6만 5811	1.97
전 세계	4834만 6378	84만 8042	1.75	1477만 7824	51만 6040	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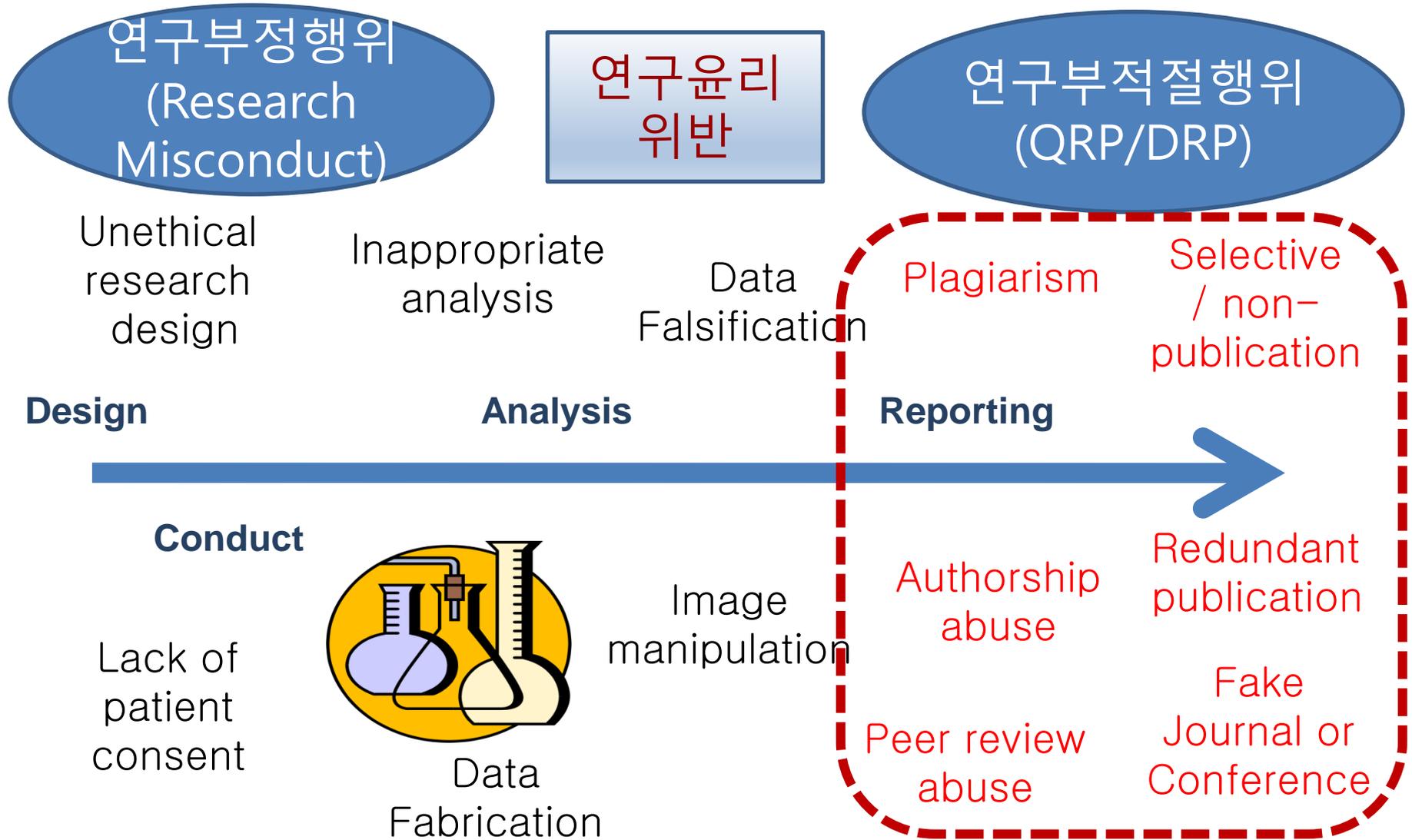
헤럴드 경제(2020. 9. 11)

출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자료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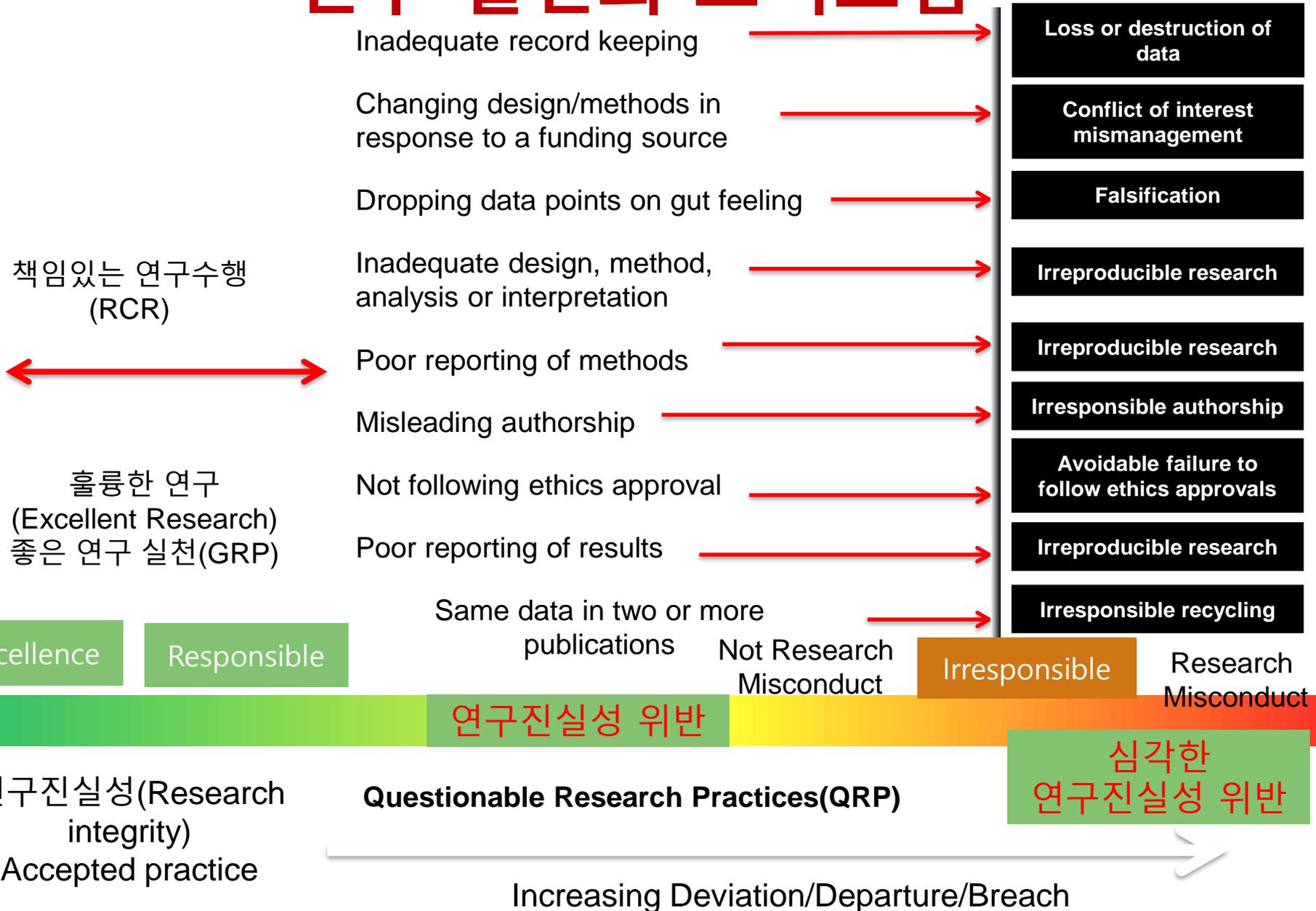
**논문 수 상위: 인도 (9.1%), 한국 (7.3%), 중국 (4.66%),
러시아 (4.04%), 이탈리아 (3.93%), 스페인 (3.18%)**

연구활동의 스펙트럼과 연구윤리의 쟁점

연구활동의 스펙트럼과 연구윤리의 쟁점



연구 실천의 스펙트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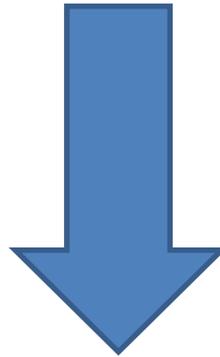


연구부정행위 발생 원인

Published papers are the currency of science.

"Publish or Perish"

의도적, 반복적,
무모하게 위반



유혹, 실수, 무지,
사소한 위반을 문제로
보지 않음 등

연구진실성(Research Integrity) 위반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윤리 분야

- 1
연구부정행위
(Research Misconduct)
- 2
인간대상 연구
(Human Subjects)
- 3
동물복지
(Animal Welfare)
- 4
멘토-멘티 관계
(Mentor/ Trainee Responsibilities)
- 5
데이터 획득, 관리, 공유, 소유권
Data Acquisition, Management, Sharing, & Ownership
- 6
출판윤리
(Publication Practices & Responsible Authorship)
- 7
동료평가
(Peer Review)
- 8
이익충돌
(Conflict of Interest and Commitment)
- 9
공동연구
(Collaborative Science)
- 10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Responsibility of Scientists in Society)

연구윤리 관련 정부의 법령(훈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17343호, 2020. 6. 9제정, 2021. 1. 1. 시행)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 제263호, 2018. 7. 17)

연구자의 책임 :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연구자의 책임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성실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

연구부정행위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연구부정행위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 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⑥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율주행차량 핵심기술 중국 유출’ 혐의 카이스트 교수 구속 기소

출처: 한겨레, 2020. 9. 14,

<http://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962121.html>

자율주행차량 관련 첨단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 김윤희)는 14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카이스트 이아무개(58)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이 교수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의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돼 연구과제를 하던 중 카이스트가 보유한 첨단기술인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의 대학 연구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는 자율주행차량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센서다. 이 교수가 자율주행차량 상용화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라이다 관련 기술을 유출했고, 해당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면 상당한 경제적 가치는 갖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이 교수가 관리하는 카이스트 부속센터의 운영비 약 1억9천만원을 유용하고, 해외파견·겸직근무 승인을 받기 위해 학교 쪽에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카이스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큰 책임감 느끼며, 앞으로 구성원의 연구 보안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동일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부정행위(제51조)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상의 불이익 조치, 위협·협박 등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 및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해치는 행위
-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행위
- 3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부정행위(제51조)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조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행위

변조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윤리 관련 정부의 법령(훈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17343호, 2020. 6. 9제정, 2021. 1. 1. 시행)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 제263호, 2018. 7. 17)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제5조)

“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제5조)

“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제12조)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

2. 변조

3. 표절

4. 부당한 저자표시

5. 부당한 중복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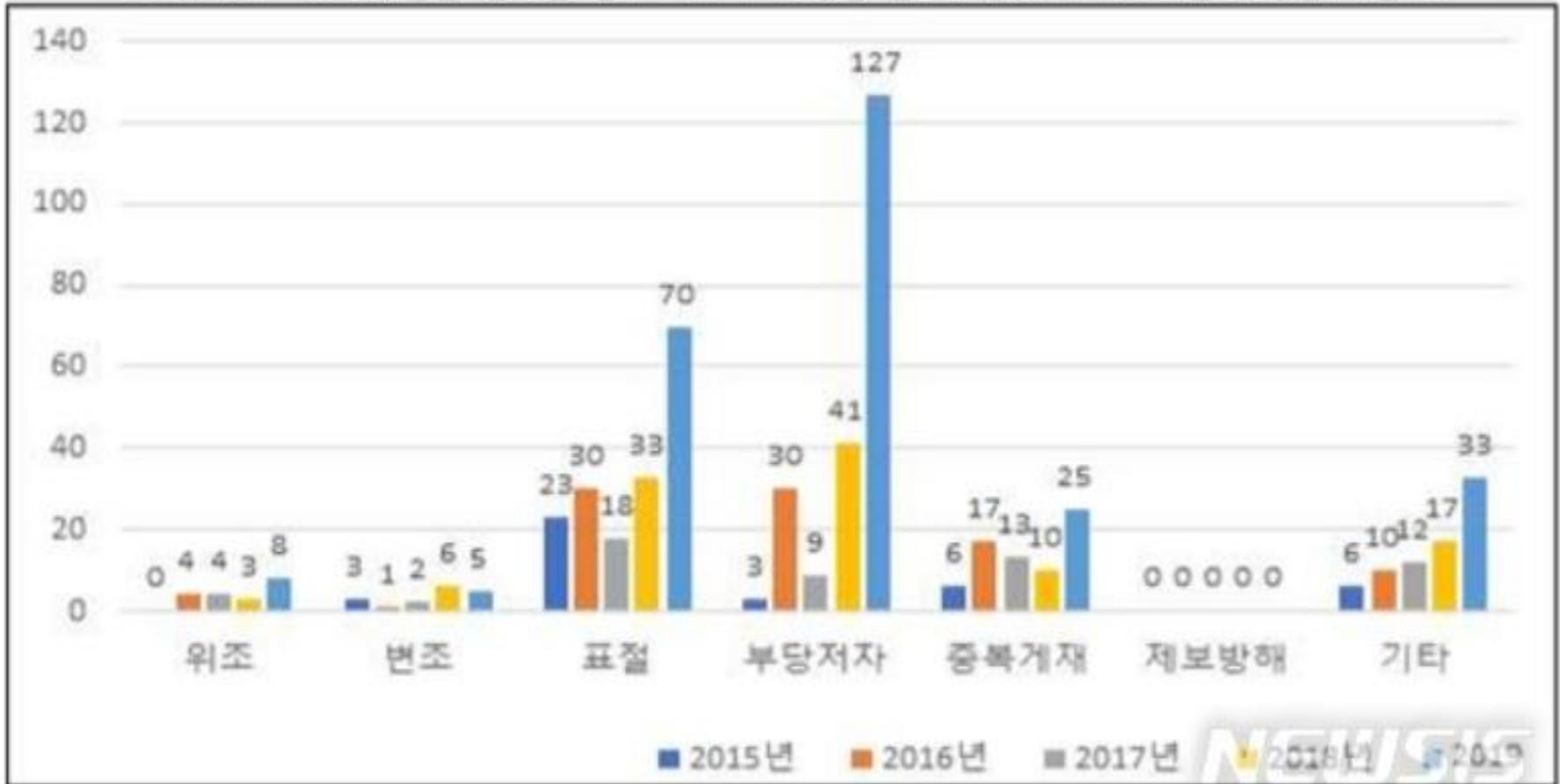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최근 5년간 연구부정행위 유형별 판정 건수

<그림 10> 최근 5년간 연도별 전국 대학의 유형별 연구부정행위 의혹사건 판정건수(건수)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19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2020. 6)

연구수행 단계별 연구자의 책임

연구 기획 단계에서의 연구자의 책임

과학적
타당성

윤리적 규범,
규칙 부합
(IRB, IACUC)

관련 분야
및 사회 발
전에 기여

이해상충
(COI) 공개,
관리 방안
수립

연구 수행 단계에서의 연구자의 책임

데이터 획득의
정직성: 위조, 변
조, 편견 금지

연구노트의 기록
과 관리
(정확, 분실 및
훼손 방지)

데이터의 해석
및 분석
(의도적인 조작,
과장, 축소, 왜곡
금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있어
자발적 동의 획득,
보호 및 비밀
유지

연구부정행위 사례(위조)



“유명 의대 교수, 논문 위조”

해당 논문 수술 기록지

patient No. ID number/grades age operative date description in operative record Fabrication(X)

1	01338514	F	73	2010 Apr 23	V-Y advancement flap	X
2	01327016	F	72	2010 May 25	Transposition flap	X
3	01116256	M	49	2010 Dec 01	V-Y advancement flap	X
4	01429515	M	27	2011 Dec 29	V-Y advancement flap	X
5	00138341	F	67	2012 Feb 07	V-Y advancement flap	X
6	01121004	F	82	2012 Aug 24	PBF(muscle?)	?
7	01440824	F	73	2013 Feb 01	V-Y	X
8	00147580	M	64	2013 Mar 28	V-Y	X
9	01474869	M	49	2013 April 09	V-Y	X
10	01394139	M	53	2013 Jun 05	PBF, Subfascial layer, no muscle included	X
11	01111774	M	74	2013 Jun 21	subfascial level, no muscle included	X
12	01111774	M	74	2013 Jun 21	PBF, no muscle	X
13	01111774	M	74	2013 Jun 21	PBF, subfascial layer, no muscle included	X
14	01111774	M	74	2013 Jun 21	PBF, subfascial layer, no muscle included	X
15	01150386	M	64	2014 April 09	SGAP; Subfascial layer, no muscle included	X
16	01150386	M	64	2014 Aug 01	PBF, Subfascial layer, no muscle included	X
17	01514094	M	73	2014 Aug 01	PBF, Subfascial layer, no muscle included	X
18	01301500	F	84	2014 Aug 22	PBF, subfascial level dissection, no muscle included	X
19	01126423	F	67	2015 April 08	V-Y	X
20	01527549	M	51	2015 Jun 10		O
21	01393751	F	75	2015 Jun 23		O
22	00199371	M	57	2015 Jul 17		O
23	01541746	F	57	2015 Jul 17		O
24	01520176	F	76	2015 Jul 23	PBF, Suprafascial layer, no muscle included	X
25	00126384	F	76	2015 Jul 28		O

근육 포함 6건 근육 X 20건



연구 부정 행위 사례 (변조)

'변조' 의혹 논문 철회 요청 '응답하라'

다른 치료병행 했음에도 한약만 투여한 것처럼 논문 작성
바른의료연구소 "논문철회 요구했지만 3개월 제 묵묵부답"

기사입력시간 2017.10.19 17:01:08

의학신문 송성철 기자 | good@doctorsnews.co.kr

차수	프로그램 내용	제공
사전	환자 상태 점검, 프로그램 설명 후 참여의사 확인	한약, 영양제
1차	경도인지장애 소개, 내 상태 이해하기	한약, 영양식
2차	경도인지장애를 극복하는 식이, 운동, 생활 요법	한약, 정리물
3차	인지기능개선을 위한 원예작업치료	한약, 제작용
4차	인지기능개선을 위한 웃음치료	한약, 영양제
사후	환자 상태 점검, 만족도 조사	한약, 영양식

▲ '한의학 경도인지장애 관리사업 보고서' 중 일부. 한약 외에 침·뜸·영양식·영양제(비타민 C·E)·웃음치료·원예작업치료 등을 함께 시행했음을 알 수 있다.

한약 이외에 다른 치료를 병행했음에도 한약만 치료한 것처럼 변조한 논문은 연구윤리를 위반한 만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회는 연구논문 철회 요구를 받은 지 3개월이 넘도록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연구논문은 2013년 대한한의학회지에 발표한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등산·달귀작약산 등 처방'.

이 논문 연구자는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40명을 대상으로 6주간 '조등산'·'달귀작약산' 등 한약을 투여한 결과, 인지기능 및 우울척도가 유의하게 개선됐다고 보고했다. 한의계는 경도인지장애를 비롯한 치매 예방에 한의 치료 효과가 검증됐다면서 이 논문을 인용했다.

경도인지장애란 인지기능의 저하는 있으나 일상생활능력은 보존된 상태로 치매의 전단계로 여겨지고 있다. 정상 노인의 연간 치매이행률은 1~2%인 반면,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10~15%로 매우 높다. 의학계에서도 경도인지장애 치료법을 찾으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히 치료 효과가 입증된 연구논문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9일 "이 논문에서는 한약만으로 치료해 경도인지장애를 호전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한방치료와 관계없는 다른 치료가 함께 시행됐다"면서 논문 연구자의 언론 인터뷰와 의정부 시 보건소의 사업보고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연구결과를 훼손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연구결과의 발표 및 유지 단계에서의 연구자의 책임

출판윤리(publication
ethics)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

출판윤리(publication ethics)란?

❖ 연구 성과를 검증 받아 알리고 널리 확산하기 위해 논문 작성, 학술 세미나 발표, 논문 및 단행본 출판, 동료 심사 등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Ethical Standa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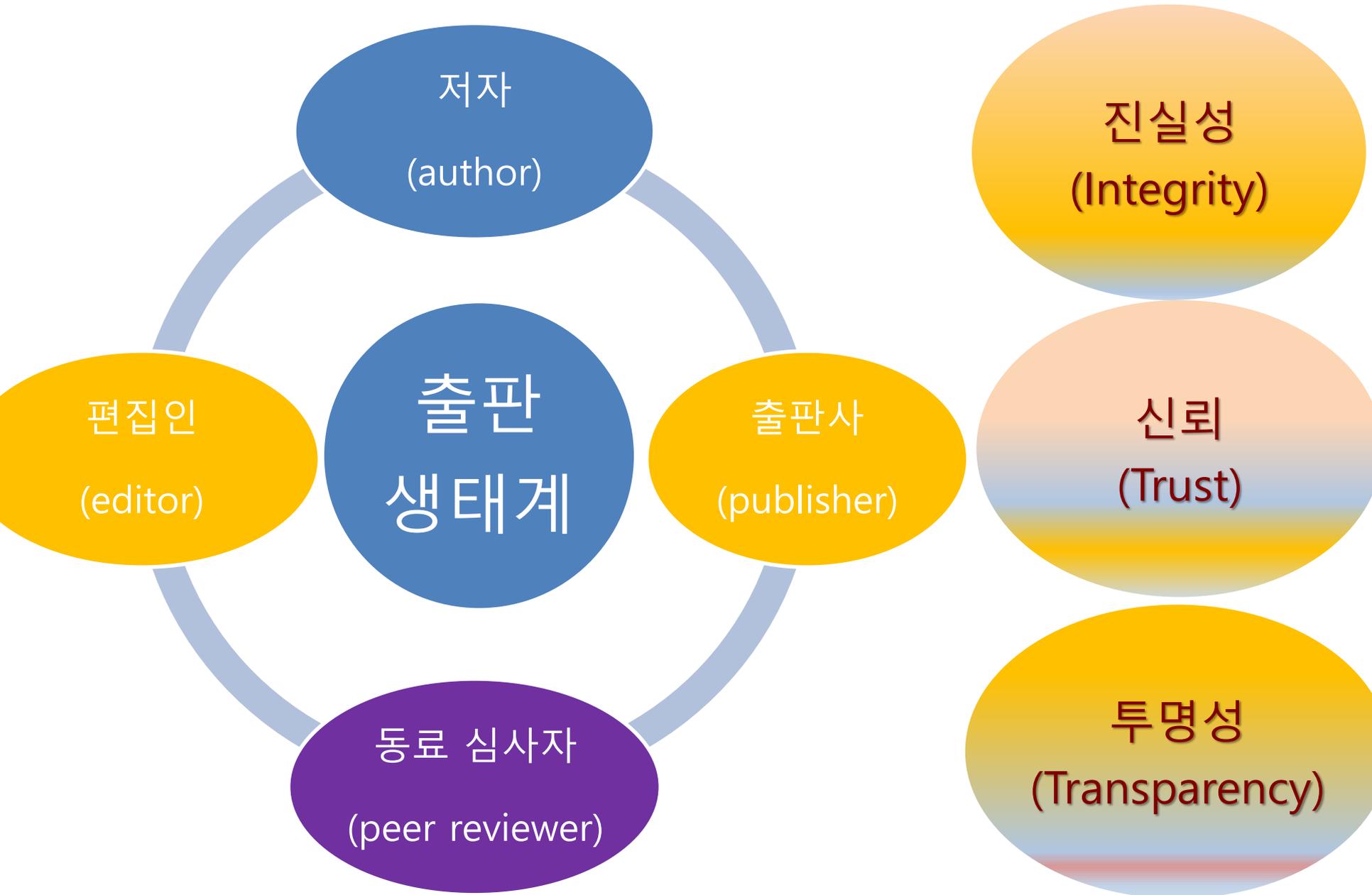
❖ 연구 진실성(Research Integrity)과 관련하여 연구공동체와 출판사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윤리의 핵심적 영역 중 하나!

거짓, 포켓팅, 선입견, 과장, 왜곡,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보고해야할 책임



출판윤리의 주체와 지향 가치



출판윤리 핵심 주체별 책임

연구자
(저자)

- ✓ 데이터 위조/변조 금지
- ✓ 표절 금지
- ✓ 중복게재, 동시투고 금지
- ✓ 부당한 저자표시 금지
- ✓ 저작권 침해 금지
- ✓ 이해상충 회피



동료심사자

- ✓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문 심사
- ✓ 성실하고 책임있는 심사
- ✓ 심사에 관한 비밀보호
- ✓ 심사 기간 엄수
- ✓ 이해상충 회피



출판사
(편집인)

- ✓ 공정한 동료심사자 배정
- ✓ 투고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 ✓ 지위나 권한의 남용 금지
- ✓ 바람직한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활용



표절(剽竊)의 의미



Plagiarism

= kidnapping the brain child of others
(plagiarius=kidnapper)

몰래 훔친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속이는 것



윤리적 글쓰기에서 벗어난
전형적인 연구부정행위

일반적 지식(common knowledge)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연구 방법(구조),
어휘나 문장, 그림, 표, 사진, 그래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지적 절도행위(intellectual thievery)

표절의 성립 조건

출처표시가
꼭 필요한 부분에
출처표시를
하지 않음

출처를
부적절하게
표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인용

출처표시가 필요할 때에 반드시 출처표시

저작권 법의 공정한 이용(fair use)에 부합하도록 인용

“표절” 유형,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01

아이디어 표절
Plagiarism of Idea

02

텍스트 표절
Plagiarism of Text

03

말 바꿔 쓰기 표절
Paraphrasing
Plagiarism

04

번역물에 대한 표절

05

2차 문헌 표절
Plagiarism of
Secondary sources

06

짜깁기 표절
(모자이크 표절)

07

**포괄적·개괄적
출처표시에
의한 표절**

08

**부정확한
출처표시에
의한 표절**

대학원생에 논문 대필시킨 현직검사, 1심서 징역 8개월·집유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41) 검사와 정 검사의 여동생인 정모(40) 교수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 검사와 정 교수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 같은 학교 대학원생들이 대신 작성한 논문을 박사학위 예비심사에 제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논문 작성) 과정 대부분이 타인에 의해 이뤄진 이상 논문은 타인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봐야 하기에 대학의 논문 예비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여동생 정 교수에 대해서도 “교수는 누구보다 연구윤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들을 일반적 사례보다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정 검사는 2016년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정 교수는 2017~2018년 학술지 논문 3편을 대필하게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논문의 대필은 정 검사의 지도교수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A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출신인 A교수는 논문 대필 의혹이 불거진 이후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성균관대는 그를 해임했다. A교수는 정 검사와 정 교수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와 법률고문 계약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894122>

논문대필

[학사 / 석사 /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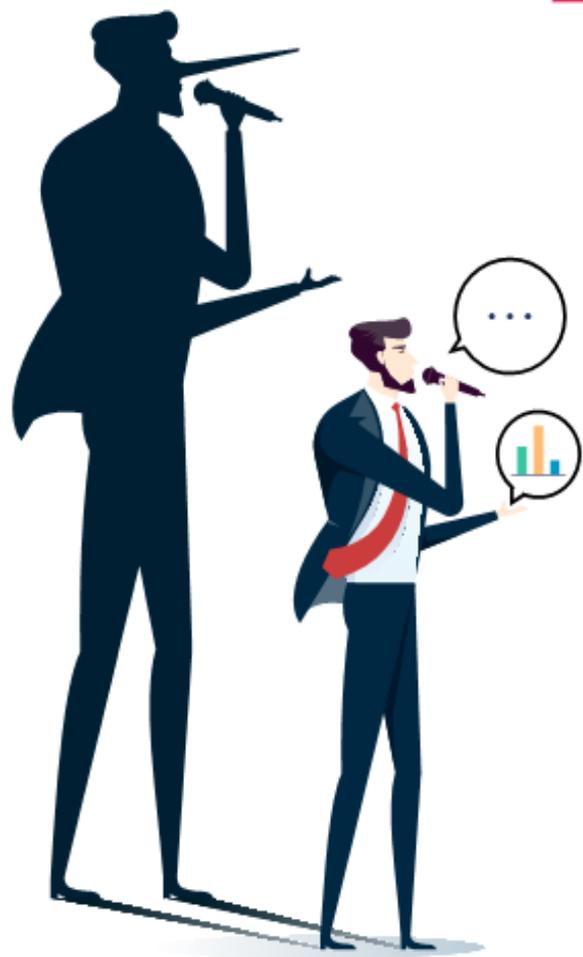
nonmun1004
@yahoo.com

짜집기 논문이 아닌, 고품질 논문작성

◆ 신원비밀 절대보장 ◆

중복게재의 의미

이미 출판된 자신의 논문과
실질적으로(substantially) 중복되는 내용(자료 등)을
자신의 후속 논문에 출처표시 없이
마치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재활용하는 행위



동일(identical) 또는 실질적인 유사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

- 가설(hypothesis)
- 자료(dataset)
- 정보(information)
- 토론(discussion)
- 논점(points)
- 결론(conclusions) 등

위의 요소가 모두 일치할 때 =

이중게재(duplicate publication)

중복게재의 의미

기존
연구자료

기존
연구결과

기존
연구가설

...



당해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출처를 표시한 후
부분적으로 사용 가능

✓ 연구 데이터는 정확한 출처 표시와 함께 사용

✓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됨

✓ 중복되는 부분을 빼더라도 학술적으로 의미 있고
새로운 부분이 포함되어야 함

허용 또는 허용되지 않는 중복게재

용어	출처표시	부당이득 (double count 등)	비고
이차출판 (secondary publication)	O	X	허용
중복게재 (redundant publication)	O	O	금지
	X	X	
부당한 중복게재 (duplicate publication)	X	O	

[자료 출처] 이인재(2017), 중복게재의 유형과 검증의 실제, 충남대 경영대학원 연구윤리 특강.

중복게재의 판단기준(예)

This statement was adopted by each of the editors and was published in their respective journals, in or near July 1999 (Thorac Surg 1999;68:1). After this, Dr Franklin Rosenfeldt, Editor of the Asia Pacific Heart Journal, expressed the desire his journal be included in the consortium of cardiothoracic journals, and that he wished to endorse the statement. The editors welcome Dr Rosenfeldt and his journal. The revised Joint Statement follows.

Joint Statement on Redundant (Duplicate) Publication by the Editors of the Undersigned Cardiothoracic Journals

1. The numbers or sample sizes are similar.
2. The methodology is identical or nearly so.
3. The results are similar.
4. At least 1 author is common to both reports.
5. Little or no new information is made available.

[자료 출처] Joint statement on redundant (duplicate) publication by the Editors of the undersigned cardio-thoracic journals+ European Journal of Cardio-Thoracic Surgery, Volume 48, Issue 3, September 2015, Page 343, <https://doi.org/10.1093/ejcts/ezv260>

연구에서 저자(author)가 된다는 것의 의미



-연구업적 인정받음
-연구자로서의
신뢰와 명예 획득
(승진, 연구비 수주,
지적 재산권 확보
등)

해당 연구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짐
(연구의 진실성 확보,
연구부정행위 예방)

누가 저자가 되어야 하는가?

- ❖ 윤정: 분자생물학과 학과장(학과장은 그 학과에서 나오는 모든 논문에 이름을 올려야 하니까)
- ❖ 미선: 연구를 위한 재료 또는 장비를 제공한 동료
- ❖ 동석: 연구의 개념화, 연구 수행, 논문 작성 및 최종 승인에 참여
- ❖ 지연: 해당 연구 분야에서 유명한 연구자(논문의 게재 및 승인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 ❖ 정원: 논문의 영어 교정 및 감수를 도와 줌

교수의 미성년 자녀나 미성년자는 연구에 참여할 수 없는가?

공정한
업적
배분

“Then can't a
teenager be
an author?”



저자가 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연구 활동

- 연구에 참여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가 학문적으로 중요한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이 아니고 **단순히 실험 보조 역할**
- 핵심적인 데이터 획득에 기여를 하지 못했으며, 획득한 데이터를 연구노트에 기록 또는 다른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미성년자 수준에서 연구설계, 데이터 획득, 분석이 가능한지
 - 부모나 성인 연구자의 도움이 어느정도 인지
- 이미 잘 확립된 방법론을 따라 시료 처리의 단순 보조업무나 반복적인 단순 측정 수행(**해당 연구의 중요한 요소에서의 실질적 기여가 아닌 통상적인 연구과정에서의 단순활동으로 acknowledgement에 표기될 정도**)
- 영어 표현에 대한 교정이나 단순 오/탈자에 대한 윤문

미성년자의 저자 관련 쟁점

- 연구 과정 및 결과에서의 공정한 업적 배분(fair credit)
- 연구윤리의 이슈와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중첩

Example: **Your son is a brilliant high school student** who is keenly interested in environmental issues. You realize that he could easily perform fact checking for your EPA work product, thereby gaining some experience and **possible authorship. Is this a problem?**

Answer: **Yes**, because you have a “covered” relationship with your son under the impartiality standards, and **cannot work with him** in your EPA capacity **unless** you first **receive clearance** from your Deputy Ethics Official.

부당한 저자표기의 유형

- 중요한 지적 기여가 없는 자를 저자에 포함하는 경우
 - ✓ 강요 저자(Coercive Authorship)
 - ✓ 명예 저자(Honorary Authorship): 손님저자(Guest author), 선물저자(Gift author), Honorary author(명예저자) 등
 - ✓ 상호지원저자(Mutual Support Authorship)
 - ✓ 중복저자(Duplication Authorship)
- 중요한 지적 기여가 있는 자를 저자에서 빠뜨린 경우
 - ✓ 유령 저자(Ghost Authorship)
 - ✓ 저자됨의 거부(Denial of Authorship): 표절의 한 유형

연구보고서 저자표기 공통기준

❖ 저자란

- 해당 연구에 실질적인 (학술적) 기여를 하고, 연구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지며, 연구진 간에 저자로 표기되는 것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개인

❖ 저자 표기 공통 기준

- 기여: 연구의 기획 및 설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연구보고서 집필 등 해당 연구에 실질적 지적 기여(substantial intellectual contribution)를 한 자
- 책임: 자신이 수행한 연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자
- 협의: 연구진 간에 저자로 표기되는 것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연구보고서 저자표기 공통기준

❖ 저자 등 표기 방법

- 저자는 연구보고서 표지에 성명만 기재
- 연구진은 연구보고서 내지에 저자를 포함하여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역할을 구분하여 기재
- 기타 기여자는 자문, 감리 등 역할을 구분하여 기재하거나 감사의 글에 기재

❖ 연구기관별 저자 표기 기준 제정

- 각 연구기관에서는 '연구보고서 저자 표기 공통 기준'을 참고하여 연구기관별 저자 표기 기준 제정
 - 기여와 책임 및 협의에 대한 세부기준은 학문분야별, 연구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연구기관에서는 직위, 직책, 나이, 성별 등에 상관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저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 제정
 - 저자 결정의 절차는 연구진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연구사업 심의기구 등을 통해 결정
- * 저자 변경 또는 저자 표기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연구사업 심의기구 등을 통해 결정

저자 등 표기 방법 (예시)

□ 연구보고서 표지

- 저자 성명만 기재

<연구보고서 표지(예시)>

홍길동, 김개동, 김말동, 김철수

□ 연구보고서 내지

- 저 자 : 성명만 기재
- 연구진 : 역할, 성명, 소속, 직책 기재
- 기타 기여자 : 역할, 성명, 소속, 직책 기재

<보고서 첫 장(예시)>

저 자 홍길동, 김개동, 김말동, 김철수

연구진	연구책임자	홍길동 (한국○○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u>김개동</u> (한국○○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u>김말동</u> (한국△△연구원 <u>부연구위원</u>)
	연구보조원	김철수 (한국대학교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u>김하나</u> (한국대학교 석사과정)

기타 기여자*	감리위원	<u>김이병</u> (한국○○연구원 연구위원)
	심의위원	<u>김일병</u> (한국대학교 교수)
	자문위원	<u>김상병</u> (한국대학교 교수)
	설문조사	○○○연구소
	원고교정	<u>김말순</u> (한국대학교 박사후연구원)

* 기타 기여자는 연구보고서 내지에 기재하거나 감사의 글에 기재할 수 있음.

특수이해관계자의 연구 참여

- 특수관계인: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가족)
- 연구 시작 전: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구, 전문성 활용 및 논문 발표 시, 이해충돌 관련 내용을 소속기관 및 공동 연구자들에게 정직하게 밝히고 관리
- 연구 수행 중: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서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 보관
- 논문 발표: 소속 기관과 해당 학술 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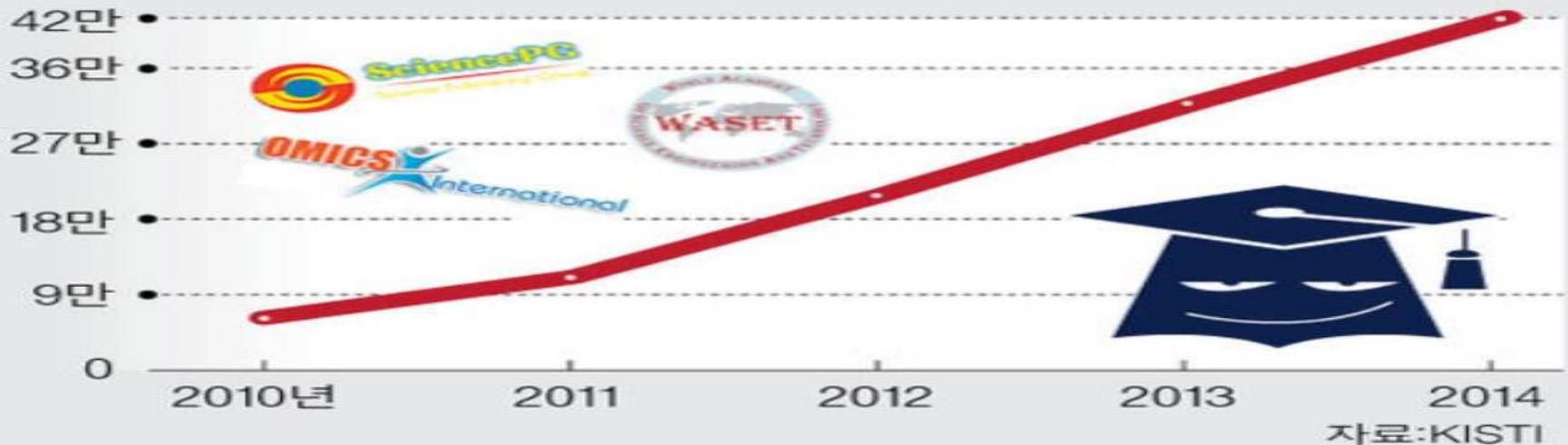
부실 학술 활동

❖ 연구자를 현혹하여 동료심사(peer review)없이 논문을 출판해 주거나(부실 학술지), 현장의 동료심사나 발표없이 논문을 받아주는(부실 학술대회) 행위

✓ 정상적 교정이나 윤문없이 불량 출판

✓ 좌장, 청중없이 허술한 행사 운영

허위 학술지 논문 추이 단위: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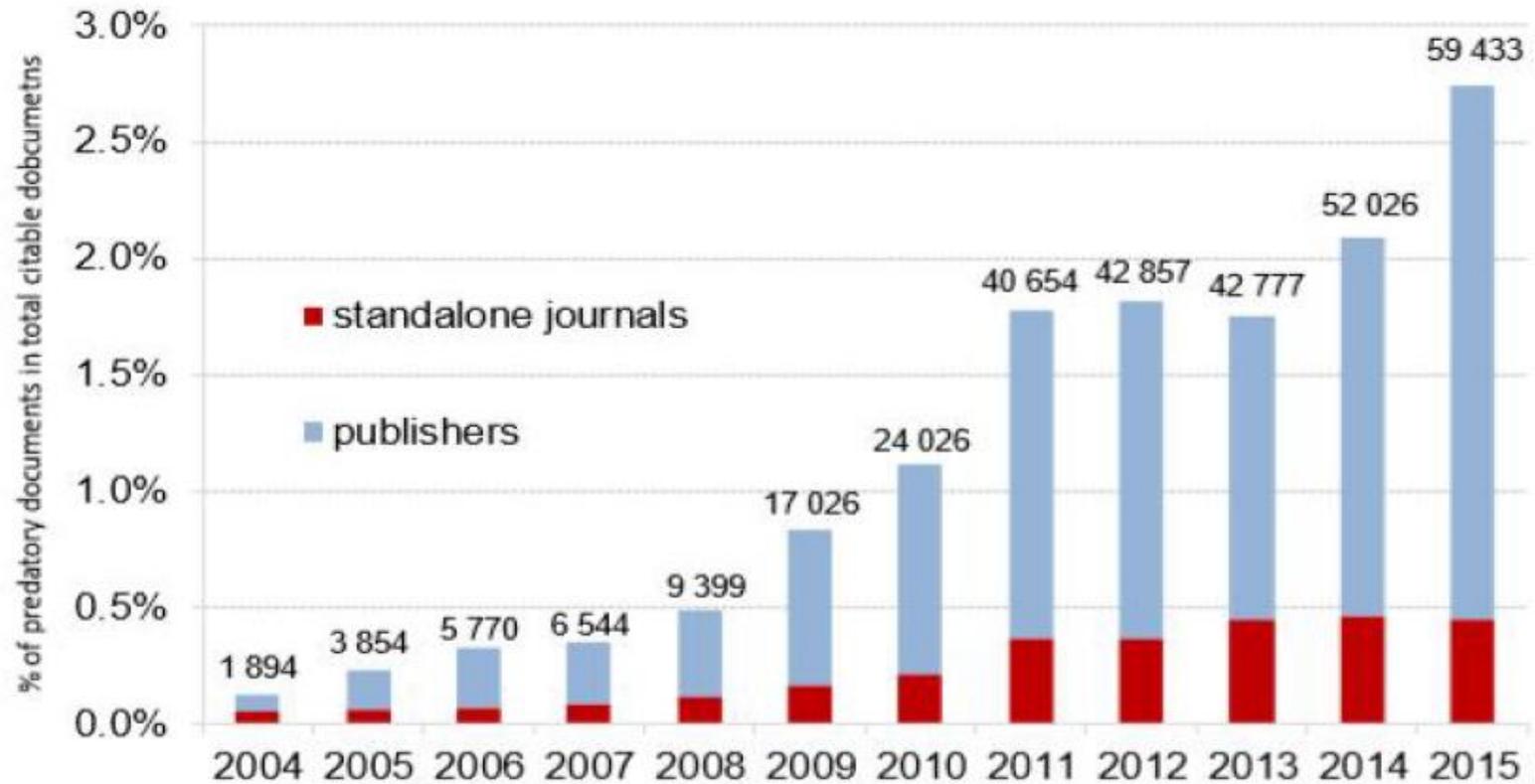


허위 학술지의 급격한 증가 (허위 학술지 4배, 허위 논문 8배 이상 증가)

* 학술지: 1,800여종(2010년) → 8,000여종(2014년) / 논문: 5만3천여건(2010년) → 42만여건(2014년)

〈그림 1〉 SCOPUS 내에 부실추정 학술지 논문 비율

Figure 1: Share of predatory documents in Scopu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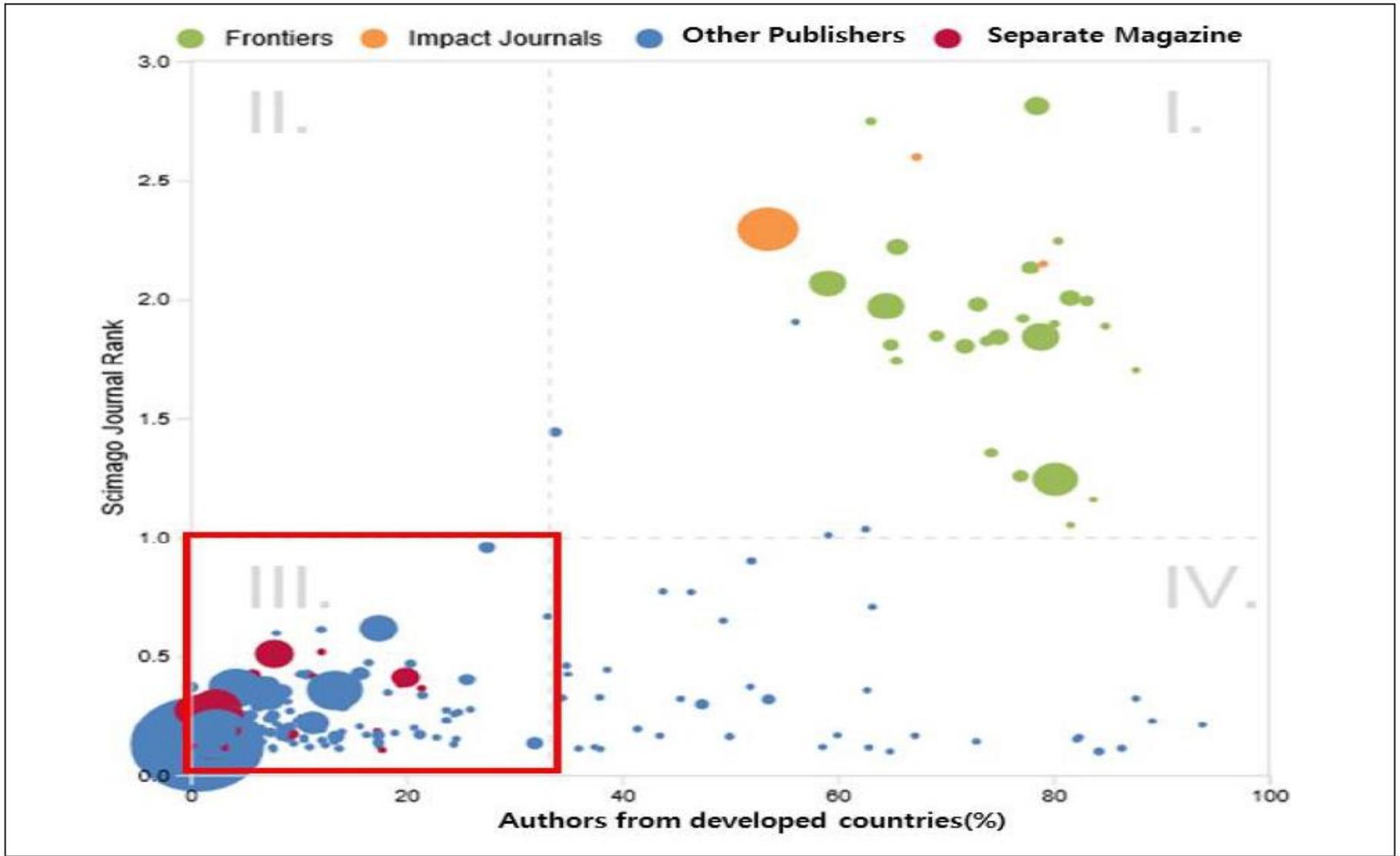


*Note: The absolute number of indexed predatory documents is reported above each column.
Source: Scopus (on 11th October 2016), Beall's lists (on 1st April 2016), authors' calculations.*

※ 출처 : Machacek & Srholec, 2017. "Predatory Journals in Scopus."IDEA CERGE EI

출처: 부실학술활동의 주요 특징과 예방 대책(NRF ISSUE REPORT, 2019. 1)

〈그림 2〉 SCOPUS등재 부실추정 학술지 405종의 유형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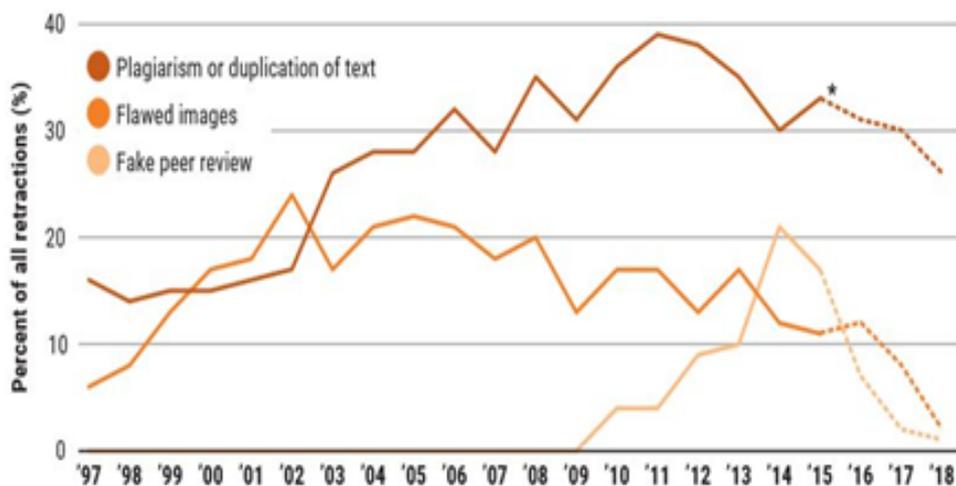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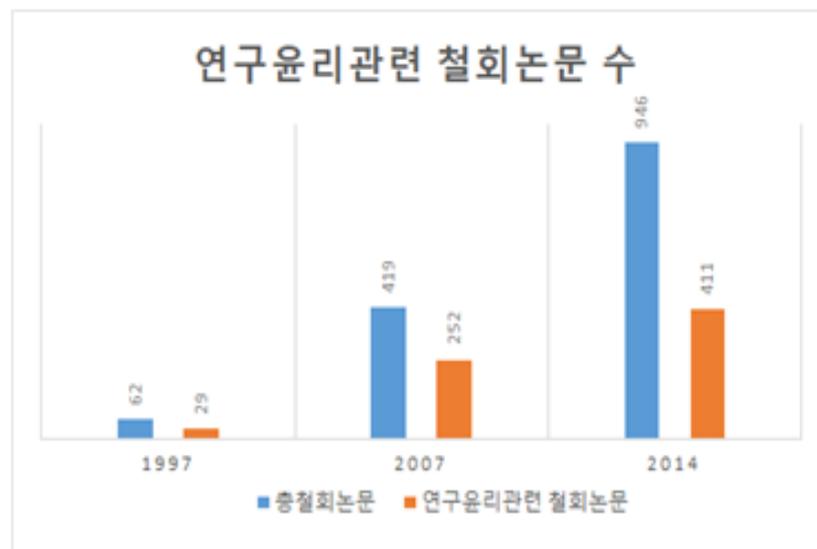
※ 출처 : <https://idea.cerge-ei.cz/predatorske-casopisy>

논문 철회 (retraction)

□ 철회 원인은 다양 - 데이터 오류나 재현성 문제가 약 40%

- ① 연구윤리 관련-데이터조작, 표절, 위조 등(40%이상) ② 오류, 재현성 문제 등(약 40%) ③ 동료심사 조작, 출처 조작, 기관 미승인 등(약 10%)
- 논문 표절과 자기표절로 인한 철회는 계속 증가

< 논문 철회 원인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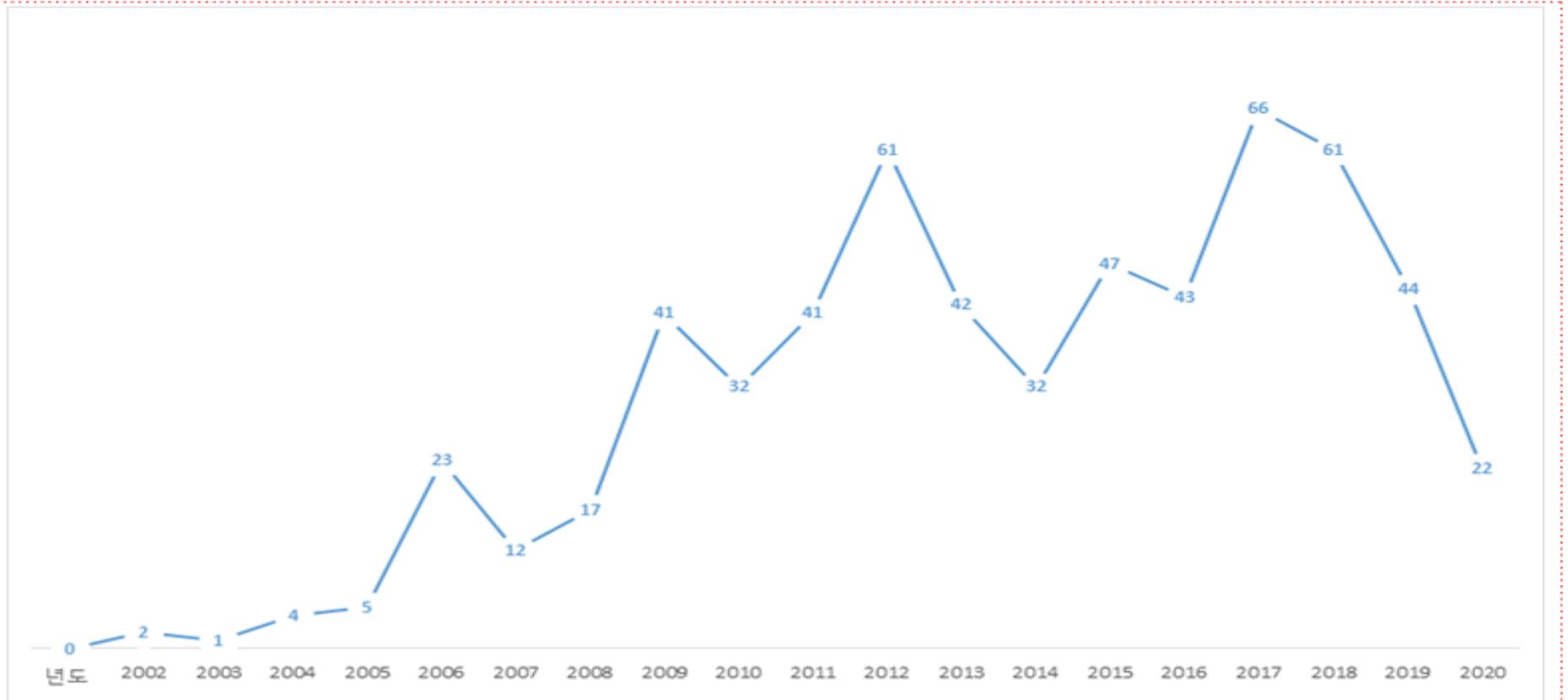
※ 참고 : Brainard, J & You, Jia, "What a massive database of retracted papers reveals about science publishing's 'death penalty,'"

한국 저자의 논문 철회

- 2002년 초반에는 낮은 편이었으나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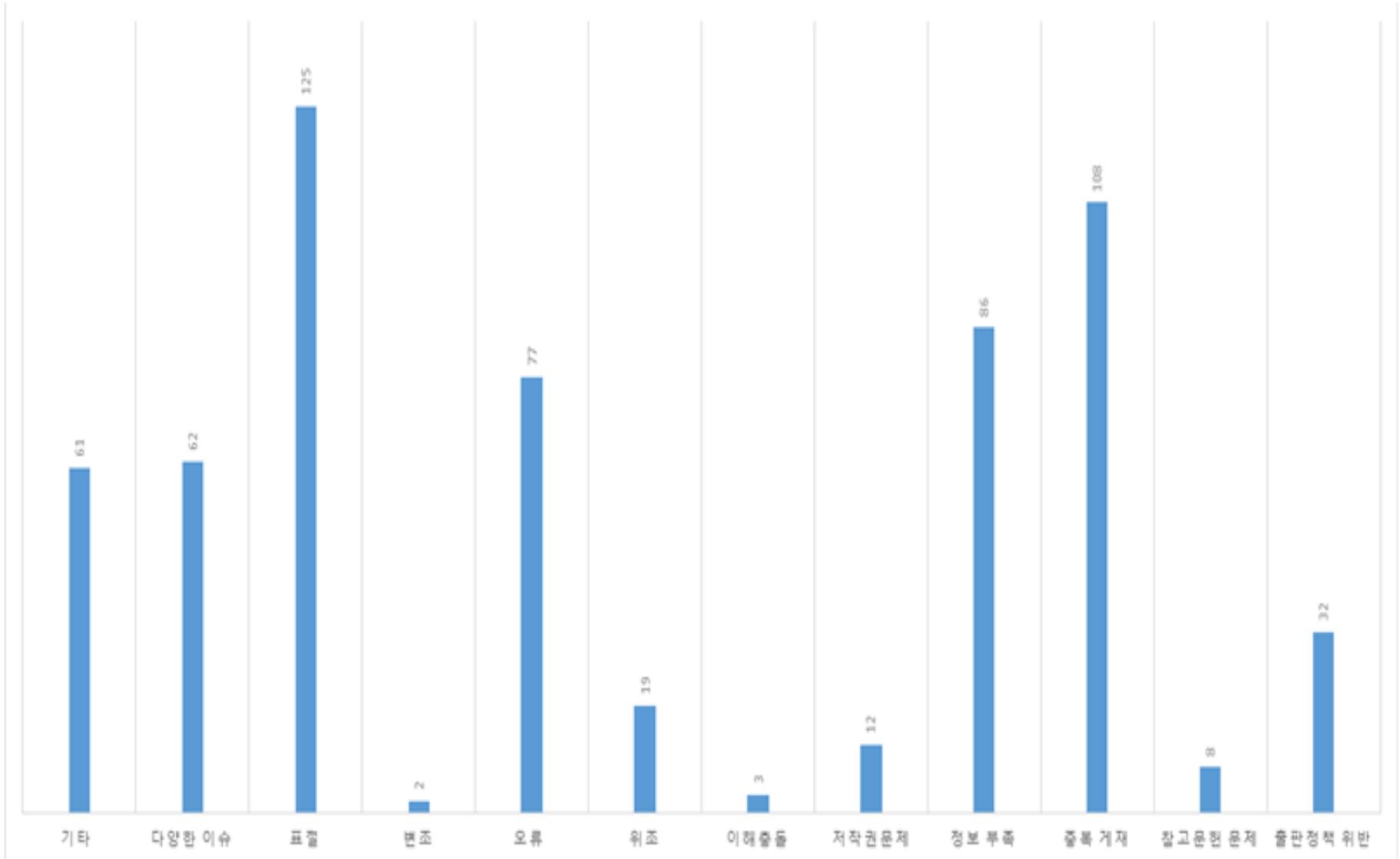
*2020년은 6월까지 철회된 논문만을 분석하였으며 2000년 이전은 생략하였음

< 한국인 저자 논문 철회 추이 >



출처: 2002년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Retraction Watch에 “Korea”로 검색하여 얻은 데이터 595개 분석

한국 저자의 논문 철회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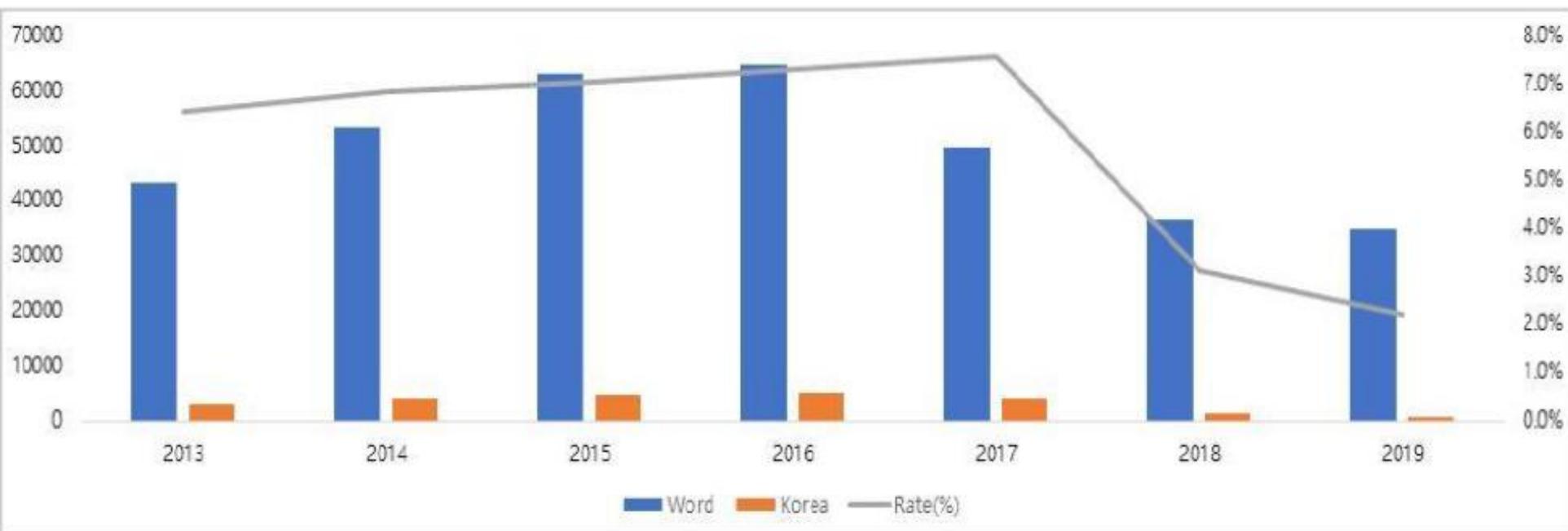


출처: 2002년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Retraction Watch에 “Korea”로 검색하여 얻은 데이터 595개 분석

국내 논문의 부실위험 저널 투고 변화

(2013-2019 SCOPUS DB)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세계 논문	43,083	53,166	62,875	64,685	49,566	36,363	34,625	344,363
한국 논문	2,755	3,641	4,418	4,712	3,747	1,131	752	21,156
한국 점유율	6.4%	6.8%	7.0%	7.3%	7.6%	3.1%	2.2%	6.1%



출처: 한국연구재단, 한국 학자의 Beall 리스트 저널 논문 게재 추이 분석 비교(2020. 6)

부실 학술지와 부실 학술지 투고자

위조학술지 (Hijacked Journals)	유명학술지와 유사한 학술지 이름을 사용하여 저자에게 혼동을 주는 학술지
약탈적학술지 (Predatory Journals)	돈만 지불하면 무조건 게재해주고 출판윤리를 어기는 학술지
대량발행학술지	SCI나 SCOPUS 등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학술지 한 호를 발행할 때마다 대량으로 발행하며 출판 윤리를 어기는 학술지

종류	특 징
순진한 기여자	경험이 부족하고 자신의 연구가 가치 있기 때문에 학술지에 논문이 기재되었다고 믿는 유형
인식한 기여자	학술지나 학회가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를 통해 실적을 올리려는 유형
가짜 과학자	학술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올바르지 않은 주장을 내세우거나 터무니 없는 이론을 내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분류

▶ 부실학술지와 일반학술지의 특징비교

○ 부실학술지와 일반학술지의 가장 큰 차이는 ‘엄격한 동료심사’ 여부

특징	부실학술지	일반학술지
동료심사	동료심사가 없거나 형식적	동료심사 필수, 최소 4주 이상 소요
마케팅	이메일/홈페이지/영향력 지수 등 공격적 마케팅	학술지의 권위에 대해 선전하지 않음
운영정보	편집부·심사자의 불투명한 정보	편집부·심사자의 뚜렷한 정보
학술지 학문범위	다양한 학문 분야	특정 학문 분야
비용처리	이메일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음	홈페이지에 공지함

출처: 부실학술활동의 주요 특징과 예방 대책(NRF ISSUE REPORT, 2019.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출연(연)연구자를 위한 부실학술활동 특징과 예방대책, 2019. 4

▶ 부실학회와 일반학회의 특징비교

특징	부실 추정 학회	일반 학회
동료심사	논문초록 심사가 없음	논문초록 심사를 거침
마케팅	관광지에서 열리거나 관광이나 다른 명목으로 비용 청구 권위 있는 학자들을 내세워 학회 권위 선전	학회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관광지에서 개최되기도 하지만 관광이나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음
낮은 신뢰성	등록비를 내면 학회참여 증서를 보냄 다양한 학문분야를 다룸 주요 일정이 자주 바뀜 학회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함	특정학문분야를 다룸 일정이 고정되어 있음 학회논문을 무조건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음
운영진의 불투명한 정보	무료 이메일 계정 학계와 연관성이 없음 연락정보가 명확하지 않음	학회 이메일 계정사용 명확한 운영자 정보와 연락정보 기재

출처: 부실학술활동의 주요 특징과 예방 대책(NRF ISSUE REPORT, 2019.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출연(연)연구자를 위한 부실학술활동 특징과 예방대책, 2019. 4

부실 학술지 점검 체크 리스트

- 학술지에 투고 전 다음의 항목을 점검하고, '예 또는 불확실'일 경우 의심을 가지고 재확인

질문	예	아니오	불확실
이 학술지를 들어본 적이 없다.			
스팸이메일을 통해 논문 제출을 독려 받았다.			
홈페이지에 학술지의 권위에 대해 선전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운영자 또는 편집자가 명확하지 않다.			
동료심사 기간이 짧고 논문 게재를 보장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논문 제출 후 수정하는 양식이 없다.			
논문의 저작권이 학술지에 있다.			
출판 후 수여증을 주거나 홈페이지에 논문출판 수여증을 다운받을 수 있다.			
저명한 학술지와 매우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논문게재비용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부실학회 점검 체크 리스트

- 학회 참석 전 다음의 항목을 점검하고, '예 또는 불확실'일 경우 의심을 가지고 재확인

질문	예	아니오	불확실
이 학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웹사이트와 이메일 주소가 정상적이거나 합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내 분야의 저명한 교수나 내 동료가 이 학회에 참가한 적이 없다.			
주최 측에서 스팸이메일을 보내거나 아침하는 듯한 표현을 쓴다.			
누가 이 학회를 주관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주최자가 신속하게 논문 초록을 수락하였다.			
주최자가 학회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것을 보장하고 있다.			
학회가 리조트나 관광명소에서 열린다			
여러 학문분야가 한꺼번에 열린다.			
기조연설자나 토론자로 초청을 받았다.			

부실 학술지 체크 사이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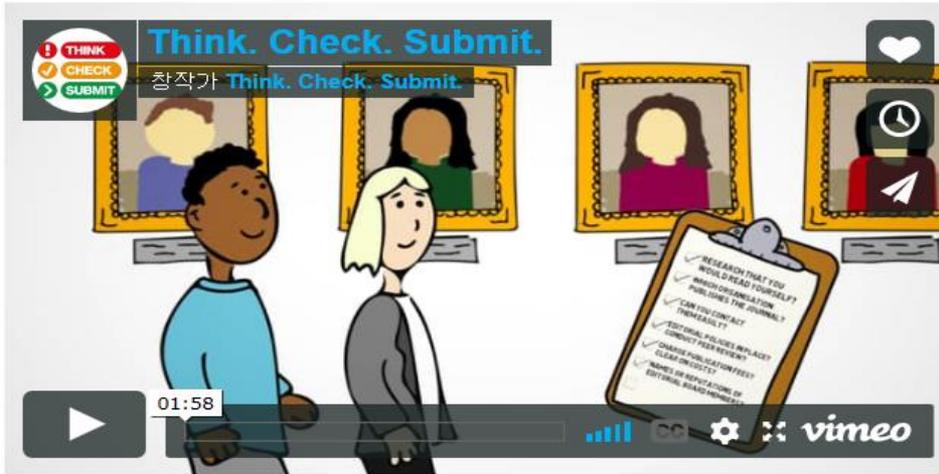


Choose the right journal for your research

<https://thinkchecksubmit.org/>
<https://thinkcheckattend.org/>

Home Think Check Submit Languages About FAQ Think. Check. Attend.

Think. Check. Submit. helps researchers identify trusted journals for their research. Through a range of tools and practical resources, this international, cross-sector initiative aims to educate researchers, promote integrity, and build trust in credible research and publications.



Sharing research results with the world is key to the progress of your discipline and career. But with so many publications, how can you be sure you can trust a particular journal? Follow this check list to make sure you choose trusted journals for your research.

Latest news

New committee page

18th April 2019

To find out more about the committee that runs Think. Check. Submit., visit our [Committee Page](#). [Read more...](#)

Survey reveals need for good guidance about trustworthy places to publish research

19th December 2018

19 December 2018 – A survey carried out by the Think. Check. Submit. initiative has revealed a strong demand... [Read more...](#)

Get involved - sign up for our mailing list here:

This website uses cookies to provide us with aggregated information about how users interact with our site, but not to track individual usage.

By using this site, you accept the use of cookies. [Accept](#) [Read More](#)

건전학술활동 지원 시스템(SAFE)

SAFE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학술정보공유시스템

소개

학술정보 목록

의심신고

부실학술활동 토론평

부실학술지

위조학술지, 약탈적학술지, 대량발행학술지

부실학술지는 출판 윤리를 따르지 않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출판하는 학술지를 의미합니다.

+ 더보기

<https://safe.koar.kr/>

건전학술지 목록

건전학술지 목록을 제공합니다

의심학술지 목록

허위 의심 학술지 목록을 엑셀파일로 제공합니다

의심학술행사 목록

OMICS, WASET을 출처로, 의심학술행사 목록을 엑셀파일로 제공합니다

결론:

연구윤리확립을 위한 연구자의 책임

바람직한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자의 책임

1

데이터의 위조(날조), 변조, 표절 등의

의도적인 연구부정행위 금지



“연구 수행 전 과정에서
정직하고 충실한 연구를 수행하였는가?”

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반성

2

비의도적인 오류

무능력

부주의

자기 기만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

“연구의 전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정확한 연구를 수행하였는가?”

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 함

요약: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자의 책임

- 과학적으로 타당한 연구 설계, 정확하고 완성된 연구 결과 제시
- 위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 금지
- 중복게재(이중게재), 논문 쪼개기(fragmentary publications) 금지
- 적절한 인용(citations)과 명확한 출처 표기
- 통계적 방법들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
- 특수 관계의 연구에 대해 이해상충 공개 및 관리
- 부실학술지 논문 게재 및 부실학술 행사 참여 금지
- 연구 참여 대상자에 대한 보호, 안전 확보, 비밀보장 등
-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공로를 부여(credit)(올바른 저자표시)





https://www.cre.or.kr/

책임있는 연구

바람직한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추구해야 할 정직성, 정확성, 효율성, 객관성을 잘 준수하여 연구진실성을 확보합니다.



연구 윤리 Q&A

1,149



5일 이내 응답률

100%



조회 수

4,100,947



회원수

4,090

CRE NEWS

CRE 알림

2019년 연구윤리포럼- 연구윤리 정립을 ...

일시: 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13:00-16:00장소: 고려대학교
매세움캠퍼스 1층 대강당

2019-12-11

더보기

타이완 교통대학교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연구윤리정보센터(이하 CRE)는 2019년 11월 29일(금) 타이완 교통대학교
(National...)

2019-12-11

CRE NEWS

언론동향

감사원 "KDI 등 3대 정부출연연구기관, ...

"모형자 수정 업무에 참여율 1%, 감독업무 참여율 0.1%도
공동저자" 감사원은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2019-1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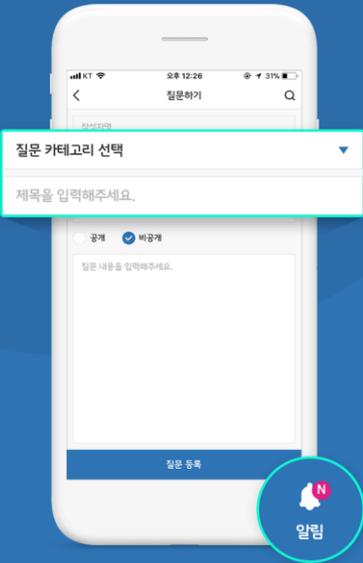
더보기

'미성년 공저자' 논문 245건 추가확인.....

유교재 '영·진도·이희승'이 공동저자 공저논문 245건이 교육부가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올린 논문 245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

2019-10-17

연구윤리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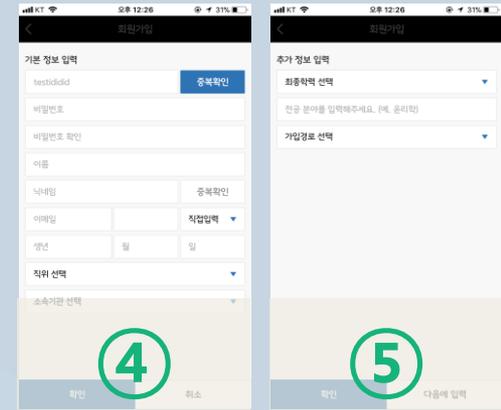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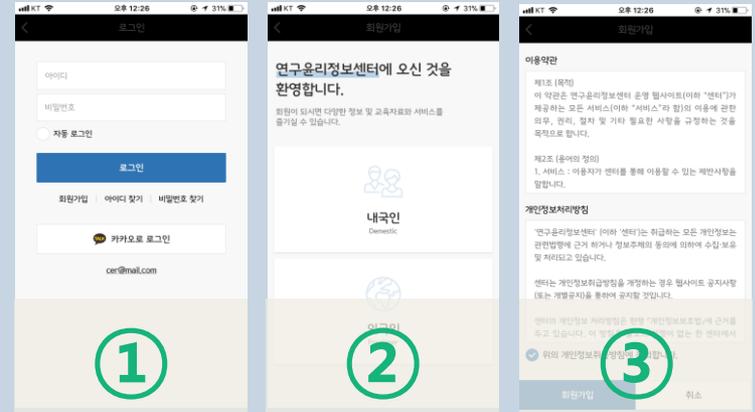


연구윤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답변은 알람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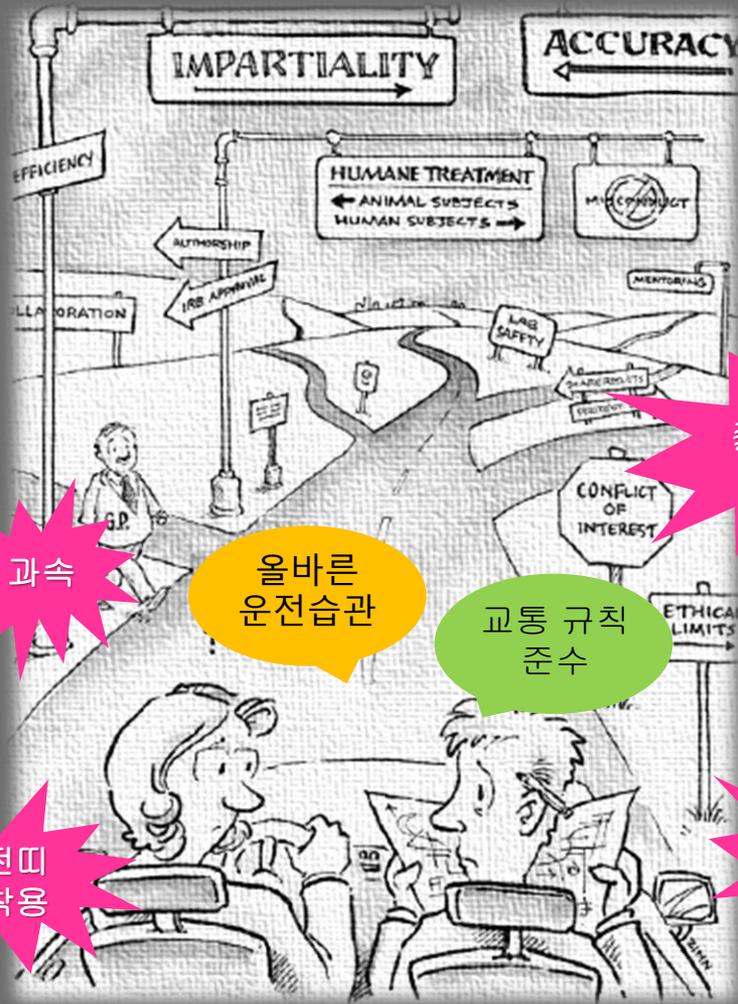
언론동향, 학술DB, 교육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APP을 통해 열람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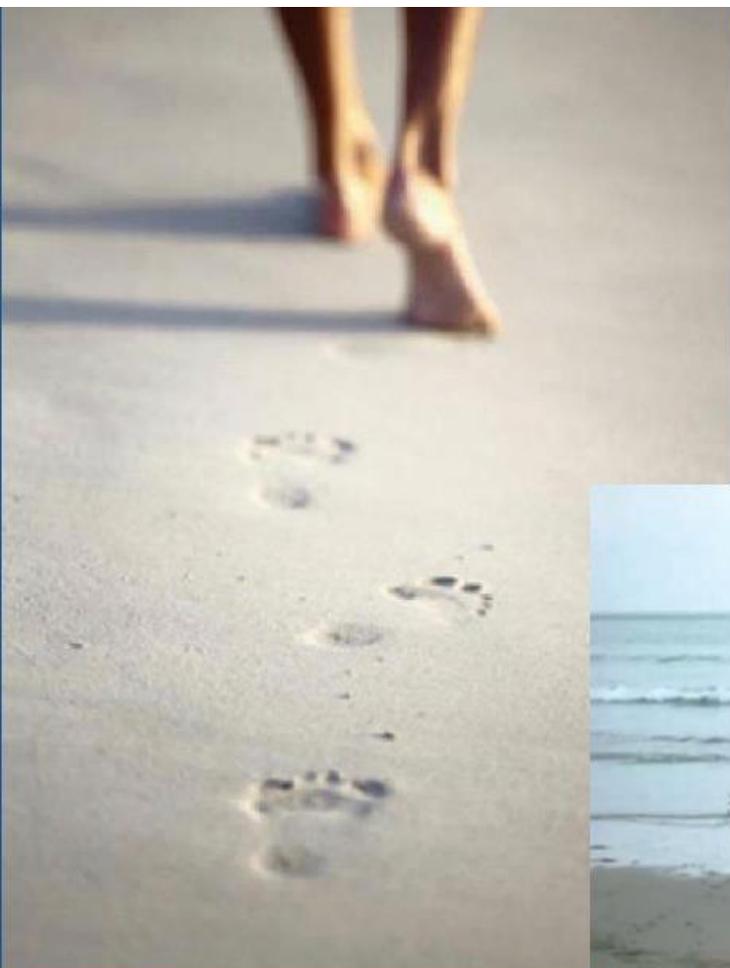
*카카오톡 계정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자에게 연구윤리는 무엇일까?



-연구활동의 GPS

-연구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책임있는 연구활동을 보장을 보장



**Trust comes on foot
and leaves on
horseback**



**There is no excellence
without research integrity**

참고 문헌

-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2018. 7)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 응답집(2016. 11. 30)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2019), 출연(연) 연구자를 위한 부실학술활동 특징과 예방 대책
-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2019),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제3판)**
- 대학신문(2017. 10. 11), 국민일보(2017. 12. 4) 기사 내용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동문사.
- 이인재(2009), "중복게재의 문제점과 연구윤리의 정립 방안,"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논집**, 제26집.
- 이인재(2009), "자기표절의 쟁점," 한국윤리학회, **윤리연구**, 제73호.
-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 Nature의 출판 가이드라인
- 한국연구재단, 부실학술활동의 주요 특징과 예방 대책, NRF ISSUE REPORT, 2019년 1월호.
- 한국연구재단, **약탈적 학술지와 학회 예방 가이드**(2018. 9)

참고 문헌

-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COPE), guideline on good publication practice.
- ORI, Introduction to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 Roig, M.(2002), "recycling portions of text from the same author/s previously published papers in psychology: An exploratory study,"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Office of Research Integrity's conference on Research Integrity, Bethesda, November.
- Roig, M.(2008), "the debate of self-plagiarism: inquisitional science or high standards of scholarship?", *Journal of Cognitive and Behavioral Psychotherapies*, Vol. 8, No. 2, September.
- von Elm E, Poggia G, Walder B, Tramer MR.(2004), "different patterns of duplicate publication," *JAMA*, 2004;291:974-80
- Wager, Elizabeth, "the role of academic societies, publishers and journal editors in promoting ethical publication practices" International Forum on Research Ethics 2014(2014. 10. 31) 발표자료

Questions?



Picture of Meerkat clan from bingwallpaper.com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재(ijlee@snue.ac.kr)